

보 도 자 료

담 당 과	통계청 고용통계팀
팀 장	김 현 애 (金賢愛)
담당사무관	노 형 준 (盧亨俊)
전 화 번 호	042) 481-2264, 2565

- ▷ 이 자료는 2008년 7월 25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에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 (2008년 5월 실시)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결과로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55~79세)의 취업실태를 파악한 것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1.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2. 이 자료는 2008년 5월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결과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3. 30~34세에 대한 취업실태 파악을 위해 청년층 부가조사시 연령을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차 례 -

■ 2008년 5월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요약)	1
I.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2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개관	
가. 청년층 인구 분포	2
나.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2
다.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 분포	3
2. 대학 졸업소요기간 및 휴학 경험	
가. 졸업소요기간	4
나. 휴학경험 및 평균 휴학 기간(대학 재학중)	5
3. 직장체험(재학/휴학 중)	
가. 직장체험 유무 및 기간	6
나. 직장체험 형태	6
4. 직업교육(훈련)	
가.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및 시기	7
나. 직업교육(훈련) 받은 기관	7
5. 취업시험 준비(비경제활동인구 중)	8
6. 취업경험 및 취업경로(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가. 취업경험 여부 및 횟수	8
나. 취업경로	9
7. 첫 일자리 관련사항(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가. 첫 취업 소요기간	9
나. 첫 직장 근속기간	10
다. 첫 일자리 산업·직업·종사상 지위	10
라. 첫 일자리 이직사유	12

■ 2008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 (요약)	13
---	----

II.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	14
-------------------------------	----

1.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개관

가. 고령층 인구 분포	14
--------------------	----

나. 고령층 경제활동상태	14
---------------------	----

다.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15
--------------------------	----

2. 고령층(55~79세) 취업실태

가.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	16
----------------------------	----

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16
-----------------------------	----

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연령	17
-----------------------------	----

라. 그만둔 이유	17
-----------------	----

3.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가. 구직활동 경험 여부	18
---------------------	----

나. 구직경로	19
---------------	----

다. 미취업자 비구직사유	19
---------------------	----

4. 지난 1년간 취업경험

가. 취업경험 여부	20
------------------	----

나.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의 관련성	20
---------------------------------	----

5.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가. 향후 취업의사 및 취업동기	21
-------------------------	----

나. 일자리 선택기준	22
-------------------	----

다. 희망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	23
---------------------------	----

6. 연금수령 여부	24
------------------	----

<참고1>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 개요	26
-----------------------------------	----

<참고2>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 개요	27
-----------------------------------	----

< 2008년 5월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요약) >

- 청년층 인구 9,821천명 중 졸업/중퇴자는 4,975천명(50.7%), 재학/휴학생은 4,837천명(49.3%)이며,
 - 졸업/중퇴자의 고용률은 69.8%, 실업률 7.1%이었음
- 대졸(3년제이하 포함) 청년층의 졸업소요기간은 평균 4년이었으며, 4년제 졸업생의 경우 평균 5년 2개월이었음
 - 남자는 5년 2개월, 여자는 3년 2개월로 나타났음
- 청년층 인구의 37.0%(3,635천명)가 최종학교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10.3%(553천명)가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함
 -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36.2%)」이 가장 많았으나, 전년대비 0.7%p하락하였고, 「고시 및 전문직(14.0%)」은 2.2%p 상승하였음
- 청년층 인구의 90.7%(4,513천명)가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59.9%(2,704천명)로 나타남
 - 주된 취업경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27.1%)」, 「가족, 친지의 소개(추천)(21.5%)」에 의한 취업 순으로 나타났음
-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취업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전년과 같았으며, 첫 직장의 평균근속기간은 20개월로 1개월 감소하였음

I.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개관

가. 청년층 인구 분포

- 2008년 5월 청년층 인구는 9,821천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39,540천명의 24.8%임
-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졸업/중퇴자는 50.7%, 학업을 마치지 않은 재학/휴학생은 49.3%로 나타났음
- * 30~34세는 졸업/중퇴자 97.1%, 재학/휴학생 2.9%로 대부분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층으로 나타남

(단위 : 천명, %)

	청년층 인구	졸업/중퇴	재학	휴학	기타
2008. 5.	9,821 (100.0)	4,975 (50.7)	4,322 (44.0)	516 (5.3)	8 (0.1)
15~19세	3,236 (100.0)	211 (6.5)	2,956 (91.3)	68 (2.1)	1 (0.0)
20~24세	2,680 (100.0)	1,330 (49.6)	1,028 (38.4)	318 (11.9)	5 (0.2)
25~29세	3,904 (100.0)	3,435 (88.0)	337 (8.6)	130 (3.3)	3 (0.1)
2007. 5.	9,863 (100.0)	5,035 (51.1)	4,273 (43.3)	548 (5.6)	7 (0.1)

* ()는 구성비

나.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 청년층 고용률은 42.3%, 실업률은 6.9%로 전체 고용률(60.5%)보다 낮고 실업률(3.0%)은 높음
- 비교적 고용시장 진입이 활발한 졸업/중퇴자의 고용률은 69.8%이나 재학/휴학생의 고용률이 14.1%로 낮는데 기인

* 30~34세 고용률은 71.1%로 고용이 활발한 30~50대 고용률에 근접

(단위 : 천명, %)

	청년층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8. 5.	9,821	4,461	4,154	307	5,360	42.3	6.9
15~19세	3,236	217	204	12	3,020	6.3	5.7
20~24세	2,680	1,391	1,272	119	1,290	47.4	8.5
25~29세	3,904	2,854	2,678	175	1,050	68.6	6.1
졸업/중퇴	4,975	3,737	3,471	265	1,239	69.8	7.1
재학/휴학	4,837	724	683	41	4,113	14.1	5.7
2007. 5.	9,863	4,540	4,222	318	5,323	42.8	7.0

다.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 분포

-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43.2%(1,500천명)로 가장 높은 반면, 농림어업 비중은 0.7%로 가장 낮음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높고, 농림어업 비중은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임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전체 ¹⁾ 취업자	(100.0)	(7.9)	(17.2)	(17.1)	(74.9)	(7.9)	(23.7)	(33.1)	(10.1)
2007. 5.	3,537 (100.0)	24 (0.7)	718 (20.3)	717 (20.3)	2,795 (79.0)	150 (4.2)	809 (22.9)	1,499 (42.4)	337 (9.5)

1) 15세이상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임

-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9%) 및 사무종사자(29.9%)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청년 고학력화에 따라 전문직종 위주의 취업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낮게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종사자			
							기능 ¹⁾	기계 ²⁾	단순 ³⁾
2008. 5.	3,471 (100.0)	1,074 (30.9)	1,038 (29.9)	663 (19.1)	15 (0.4)	681 (19.6)	248 (7.1)	250 (7.2)	183 (5.3)
전체 ⁴⁾ 취업자	(100.0)	(22.2)	(14.8)	(23.1)	(7.3)	(32.7)	(10.1)	(10.7)	(11.9)
2007. 5.	3,537 (100.0)	1,111 (31.4)	1,039 (29.4)	652 (18.4)	19 (0.5)	716 (20.2)	247 (7.0)	270 (7.6)	199 (5.6)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 단순노무종사자
4) 15세이상 전체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임

2. 대학 졸업소요기간 및 휴학 경험

가. 졸업소요기간

- 대졸 청년층의 최종학교 졸업소요기간은 평균 4년이며, 4년제 졸업생의 경우 졸업소요기간은 5년 2개월이었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졸업소요기간은 5년 2개월, 여자는 3년 2개월로 나타났음

	대 졸	3년제이하		4년제
		3년제이하	4년제	4년제
2008. 5.	4년	2년 10개월	3년 11개월	5년 2개월
남자	5년 2개월	3년 11개월	2년 2개월	6년 4개월
여자	3년 2개월	2년 2개월	3년 11개월	4년 4개월
2007. 5.	3년 11개월	2년 11개월	3년 11개월	5년 2개월

나. 휴학 경험 및 평균 휴학 기간(대학 재학중)

- 대졸(3년제이하 포함) 청년층의 38.3%가 대학 재학중 휴학 경험이 있었으며, 전년대비 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영향으로 73.2%가 휴학 경험이 있었으며, 여자는 15.6%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휴학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71.0%)」,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16.8%)」, 「학비(생활비) 마련(12.8%)」 순으로 나타났음
 -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할 경우, 4년제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가 3년제 이하는 「학비(생활비) 마련」이 높게 나타남
 - 대학 재학 중 휴학경험자의 평균 휴학 기간은 2년 5개월로 전년대비 1개월 줄었으며, 남자는 2년 10개월, 여자는 1년 3개월로 나타났음
- * 30~34세 휴학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83.4%)」이 높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11.8%)」,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8.6%)」, 「학비(생활비) 마련(9.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청년층 대졸자	휴학 경험 있음	휴 학 사 유					평균 휴학 기간
			병역 의무 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인턴 등 현장경험	학비 (생활비) 마련	기타	
2008. 5.	2,971 (100.0)	1,136 (38.3) (100.0)	806 (71.0)	191 (16.8)	128 (11.3)	145 (12.8)	108 (9.5)	2년 5개월
남자	1,167 (100.0)	855 (73.2) (100.0)	806 (94.3)	92 (10.7)	46 (5.4)	67 (7.8)	52 (6.1)	2년 10개월
여자	1,804 (100.0)	282 (15.6) (100.0)	0 (0.0)	100 (35.4)	82 (29.2)	79 (27.9)	56 (20.0)	1년 3개월
3년제 이하	1,530 (100.0)	433 (28.3) (100.0)	363 (84.0)	42 (9.6)	14 (3.2)	62 (14.2)	42 (9.6)	2년 7개월
4년제	1,441 (100.0)	704 (48.8) (100.0)	443 (63.0)	150 (21.3)	115 (16.3)	84 (11.9)	67 (9.4)	2년 4개월
2007. 5.	2,889 (100.0)	1,049 (36.3) (100.0)	781 (74.4)	153 (14.6)	105 (10.0)	135 (12.8)	118 (11.2)	2년 6개월

* 휴직사유는 복수응답으로 합계가 휴학경험있음과 일치하지 않으며 구성비 합도 100을 넘음

3. 직장체험(재학/휴학 중)

가. 직장체험 유무 및 기간

- 청년층 인구 중 학교 재학/휴학 기간 동안에 「직장체험 경험 있음¹⁾」은 37.0% (3,635천명)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청년층인구	직장체험 경험 있음 ¹⁾	직장체험 경험 있음 ¹⁾				직장체험 경험 없음	미상
			1개월 미만	1~3개 월미만	3~6개 월미만	6개월 이상		
2008. 5.	9,821 (100.0)	3,635 (37.0)	497 (13.7)	1,038 (28.5)	829 (22.8)	1,272 (35.0)	6,178 (62.9)	8 (0.1)
남자	4,799 (100.0)	1,668 (34.8)	216 (12.9)	477 (28.6)	401 (24.0)	574 (34.4)	3,128 (65.2)	3 (0.1)
여자	5,022 (100.0)	1,967 (39.2)	281 (14.3)	561 (28.5)	428 (21.7)	698 (35.5)	3,050 (60.7)	5(0.1)
2007. 5.	9,863 (100.0)	3,797 (38.5)	541 (14.2)	990 (26.1)	836 (22.0)	1,431 (37.7)	6,059 (61.4)	7 (0.1)

1) 취업포함

나. 직장체험 형태

- 재학/휴학 기간 동안 직장체험을 한 청년층의 주요 직장체험 형태는 「시간제로 아르바이트」가 55.1%(2,003천명), 「전일제로 직장에 취업」이 24.6%(895천명)로 나타났음

* 30~34세의 37.5%가 직장체험 경험이 있었으며, 주요 직장체험 형태는 「시간제로 아르바이트(41.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직장체험 경험자	전일제로 직장에 취업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학교의 현장 실습	기업 인턴	정부지원 직장 체험프로그램
2008. 5.	3,635(100.0)	895 (24.6)	2,003 (55.1)	579 (15.9)	102 (2.8)	55 (1.5)
남자	1,668 (100.0)	484 (29.0)	933 (55.9)	190 (11.4)	45 (2.7)	16 (1.0)
여자	1,967 (100.0)	411 (20.9)	1,070 (54.4)	389 (19.8)	58 (2.9)	39 (2.0)
2007. 5.	3,797(100.0)	1,008 (26.5)	2,024 (53.3)	617 (16.2)	108 (2.8)	41 (1.1)

4. 직업교육(훈련)

가.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및 시기

- 청년층 인구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2%(1,496천명)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하였음
- 직업교육(훈련) 경험자의 46.2%(691천명)는 「재학/휴학 중」에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여자(18.0%)가 남자(12.3%)보다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청년층 인구	직업교육 (훈련) 경험있음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직업교육 (훈련) 경험없음	미상
			재학/휴학 중	졸업/중퇴이후	재학/휴학 및 ¹⁾ 졸업/중퇴 이후		
2008. 5.	9,821 (100.0)	1,496 (100.0) (15.2)	691 (46.2)	626 (41.8)	180 (12.0)	8,317 (84.7)	8 (0.1)
남자	4,799 (100.0)	590 (100.0) (12.3)	261 (44.2)	277 (46.9)	53 (8.9)	4,206 (87.6)	3 (0.1)
여자	5,022 (100.0)	906 (100.0) (18.0)	430 (47.5)	349 (38.5)	127 (14.0)	4,111 (81.9)	5 (0.1)
2007. 5.	9,863 (100.0)	1,519 (100.0) (15.4)	769 (50.6)	593 (39.0)	157 (10.3)	8,338 (84.5)	7 (0.1)

1) 재학/휴학 중, 졸업/중퇴 이후 모두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나. 직업교육(훈련) 받은 기관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곳은 사설학원(69.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9.7%)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직업교육 (훈련) 경험있음	공공단체운영 훈련기관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	비영리법인, ¹⁾ 대학 등	사설학원	기타 ²⁾
2008. 5.	1,496 (100.0)	126 (8.4)	145 (9.7)	88 (5.9)	1,036 (69.3)	100 (6.7)
남자	590 (100.0)	72 (12.1)	75 (12.6)	20 (3.3)	373 (63.2)	51 (8.7)
여자	906 (100.0)	55 (6.0)	71 (7.8)	68 (7.5)	664 (73.3)	49 (5.4)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에 대한 분류를 변경·조사함에 따라 이전시점과 비교 할 수 없음

1) 비영리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시설 2)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기타

5. 취업시험 준비(비경제활동인구 중)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관련 시험 준비자는 10.3%(553천명)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였음
- 시험준비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일반직 공무원(36.2%)」 과 「교원임용(7.3%)」은 각각 0.7%p, 1.8%p 하락한 반면, 「고시 및 전문직(14.0%)」 준비는 2.2%p 상승하였음
- * 30~34세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71천명(7.0%)이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였으며, 「공무원 교원 고시 및 전문직(50.7%)」, 「기능분야 및 기타(35.6%)」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청년층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시험 준비 하였음	취업시험 준비 분야						취업시험 ¹⁾ 준비하지 않았음	기타
			일반 기업체	언론사 / 공영 기업체	교원 임용	일반직 공무원	고시 및 전문직	기능분야 및 기타		
2008. 5.	5,360 (100.0)	553 (10.3) (100.0)	92 (16.6)	40 (7.3)	40 (7.3)	200 (36.2)	77 (14.0)	104 (18.7)	4,798 (89.5)	8(0.1)
남자	2,677 (100.0)	312 (11.6) (100.0)	61 (19.6)	26 (8.2)	5 (1.5)	121 (38.7)	57 (18.4)	42 (13.5)	2,363 (88.3)	3(0.1)
여자	2,683 (100.0)	242 (9.0) (100.0)	30 (12.6)	15 (6.1)	35 (14.6)	80 (32.9)	20 (8.3)	62 (25.4)	2,436 (90.8)	5(0.2)
2007. 5.	5,323 (100.0)	530 (9.9) (100.0)	88 (16.5)	38 (7.2)	48 (9.1)	196 (36.9)	62 (11.8)	98 (18.4)	4,788 (89.9)	7(0.1)

1) 「취업시험 준비하지 않았음」은 통학(80.7%), 육아(7.0%), 쉬었음(4.4%), 가사(3.1%), 기타(4.8%) 등이었음

6. 취업경험 및 취업경로(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가. 취업경험 여부 및 횟수

-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중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90.7%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청년층인구	취업경험 있음 ¹⁾	취업경험 횟수				취업경험 없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상	
2008. 5.	4,975 (100.0)	4,513 (90.7) (100.0)	1,810 (40.1)	1,118 (24.8)	869 (19.2)	717 (15.9)	462 (9.3)
2007. 5.	5,035 (100.0)	4,603 (91.4) (100.0)	1,830 (39.8)	1,169 (25.4)	889 (19.3)	715 (15.5)	432 (8.6)

1) 현재 취업 포함

나. 취업경로

-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27.1%)」, 「가족, 친지의 소개(추천)(21.5%)」에 의한 취업 순으로 나타났음
-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이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31.4%)」에 의한 취업이 많았고, 대졸이상은 「공개시험(28.5%)」에 의한 취업이 많았음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자	가족, 친지 소개(추천)	그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	공개 시험	특별 채용	그 외 ¹⁾
2008. 5.	3,471 (100.0)	747 (21.5)	433 (12.5)	306 (8.8)	942 (27.1)	707 (20.4)	124 (3.6)	213 (6.1)
고졸 이하	1,203 (100.0)	379 (31.5)	203 (16.8)	86 (7.1)	378 (31.4)	60 (5.0)	21 (1.7)	78 (6.5)
대졸 이상	2,268 (100.0)	368 (16.2)	230 (10.1)	220 (9.7)	565 (24.9)	647 (28.5)	104 (4.6)	135 (5.9)
2007. 5.	3,537 (100.0)	761 (21.5)	449 (12.7)	328 (9.3)	976 (27.6)	669 (18.9)	141 (4.0)	213 (6.0)

1)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박람회 등

7. 첫 일자리 관련사항(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가. 첫 취업 소요기간

-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52.1%는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전년과 동일하였음
- * 30~34세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49.9%는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5개월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첫 취업 소요기간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2008. 5.	4,513	4,383 (100.0)	2,281 (52.1)	549 (12.5)	429 (9.8)	499 (11.4)	232 (5.3)	393 (9.0)	11개월
2007. 5.	4,603	4,449 (100.0)	2,446 (55.0)	478 (10.7)	407 (9.2)	469 (10.5)	241 (5.4)	408 (9.2)	11개월

나. 첫 직장 근속기간

- 임금근로 취업경험자들의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은 20개월로 전년대비 1개월 감소하였음
- 첫 직장 근속기간은 「1~2년 미만(1,058천명, 2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 30~34세의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은 35개월로, 연령이 높아지면 근속기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첫 직장 근속기간별						평균 근속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1년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2008. 5.	4,513	4,383 (100.0)	528 (12.1)	631 (14.4)	896 (20.4)	1,058 (24.1)	500 (11.4)	770 (17.6)	20개월
前職있음	3,052	2,991 (100.0)	330 (11.0)	478 (16.0)	748 (25.0)	782 (26.1)	297 (9.9)	359 (11.9)	17개월
前職없음 ¹⁾	1,462	1,391 (100.0)	198 (14.3)	153 (11.0)	148 (10.6)	276 (19.9)	203 (14.6)	414 (29.8)	28개월
2007. 5.	4,603	4,449 (100.0)	536 (12.0)	611 (13.7)	870 (19.5)	1,106 (24.9)	525 (11.8)	802 (18.0)	21개월

1) 현직장이 첫 일자리인 취업자

다. 첫 일자리 산업·직업·종사상 지위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7%), 도소매·음식숙박업(24.3%), 광업·제조업(20.4%) 등이 많았음
- 청년층의 첫 일자리 산업이 「광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인 경우 이직경험이 많으며, 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자리는 1-다.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 분포 참고)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 유경험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2008. 5.	4,513 (100.0)	25 (0.6)	921 (20.4)	3,567 (79.0)	245 (5.4)	1,096 (24.3)	1,836 (40.7)	390 (8.6)
남자	1,940 (100.0)	18 (0.9)	550 (28.4)	1,372 (70.7)	152 (7.8)	499 (25.7)	530 (27.3)	192 (9.9)
여자	2,573 (100.0)	7 (0.3)	371 (14.4)	2,195 (85.3)	93 (3.6)	597 (23.2)	1,306 (50.7)	199 (7.7)
이직 경험자	3,052 (100.0)	14 (0.5)	645 (21.1)	2,392 (78.4)	188 (6.1)	859 (28.2)	1,117 (36.6)	229 (7.5)
2007. 5.	4,603 (100.0)	22 (0.5)	986 (21.4)	3,595 (78.1)	237 (5.1)	1,157 (25.1)	1,756 (38.1)	445 (9.7)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형태는 사무종사자(27.5%), 서비스·판매종사자(25.9%),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0.2%) 등이 많았음

○ 첫 일자리 직종이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인 경우 이직 경험이 많으며, 주로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 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자리는 1-다.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 분포 참고)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 유경험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종사자
2008. 5.	4,513 (100.0)	1,171 (25.9)	1,240 (27.5)	1,170 (25.9)	21 (0.5)	912 (20.2)
남자	1,940 (100.0)	445 (22.9)	286 (14.7)	486 (25.0)	17 (0.9)	706 (36.4)
여자	2,573 (100.0)	726 (28.2)	954 (37.1)	684 (26.6)	4 (0.1)	206 (8.0)
이직 경험자	3,052 (100.0)	604 (19.8)	736 (24.1)	991 (32.5)	13 (0.4)	708 (23.2)
2007. 5.	4,603 (100.0)	1,200 (26.1)	1,278 (27.8)	1,175 (25.5)	20 (0.4)	930 (20.2)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고용형태는 63.2%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82.9%가 「전일제」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졸업/중퇴 취업 유경험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계약 여부				근로 형태 ¹⁾			
		계약기간 정함		계약기간 정하지 않음		전일제	시간제		
		1년 이하	1년 초과	계속근무 가능	일시적 일자리				
2008. 5.	4,513 (100.0)	505 (11.2)	287 (6.4)	2,852 (63.2)	740 (16.4)	3,743 (82.9)	640 (14.2)	81 (1.8)	49 (1.1)
남자	1,940 (100.0)	217 (11.2)	121 (6.3)	1,139 (58.7)	396 (20.4)	1,557 (80.3)	316 (16.3)	38 (1.9)	30 (1.5)
여자	2,573 (100.0)	288 (11.2)	165 (6.4)	1,713 (66.6)	344 (13.4)	2,185 (84.9)	325 (12.6)	43 (1.7)	20 (0.8)
이직 경험자	3,052 (100.0)	415 (13.6)	164 (5.4)	1,788 (58.6)	626 (20.5)	2,488 (81.5)	503 (16.5)	37 (1.2)	23 (0.8)
2007. 5.	3,139 (100.0)	384 (12.2)	125 (4.0)	1,874 (59.7)	687 (21.9)	-	-	44 (1.4)	24 (0.8)

1) 2008. 5월 처음 조사한 항목으로 이전자료는 없음

라. 첫 일자리 이직사유

-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이직경험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3.3%)」, 「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혼 등)(19.2%)」, 「전망이 없어서(9.5%)」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로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1.1%p 상승한 반면, 「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혼 등)」는 1.3%p 하락하였음

(단위 : 천명, %)

	이직 ¹⁾ 경험자	근로여건 불만족	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혼 등)	전망이 없어서	전공, 지식, 기술 적성등이 맞지 않음	직장 휴업, 폐업, 파산등	그 외 ²⁾
2008. 5.	3,052 (100.0)	1,322 (43.3)	587 (19.2)	289 (9.5)	207 (6.8)	92 (3.0)	554 (18.2)
남자	1,274 (100.0)	563 (44.1)	218 (17.1)	138 (10.8)	86 (6.8)	36 (2.8)	233 (18.3)
여자	1,777 (100.0)	759 (42.7)	369 (20.8)	151 (8.5)	121 (6.8)	56 (3.2)	321 (18.0)
2007. 5.	3,139 (100.0)	1,326 (42.2)	645 (20.5)	293 (9.3)	246 (7.8)	120 (3.8)	510 (16.2)

1) 실업·비경제활동인구 포함

2) 회사내 인간관계, 임시적인 일, 일거리 없음, 계약만료 등

< 2008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 (요약) >

-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은 49.9%, 실업률은 1.5% 이었음
- 고령층 중 취업자는 49.9%(4,411천명),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은 44.6% (3,945천명)이었으며, 「생애동안 취업경험 전혀 없음」은 5.5%(485천명)로 나타났음
-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은 20년 8개월이었으며,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만53세였음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남자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31.0%)」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33.4%)가 가장 많았음
- 미취업자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없었던 자(비구직자)는 91.8%로 비구직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38.4%)」, 「나이가 많아서(30.0%)」 순으로 나타났음
- 고령층의 57.1%(5,045천명)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동기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1.2%)」,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19.8%)」 순으로 나타났음
 -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74.1%, 희망 임금수준은 「월평균 50~100만원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음
- 고령층의 29.9%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으며, 연금수령자의 81.2%는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0만원미만으로 나타났음

Ⅱ.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

1.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개관

가. 고령층 인구 분포

- 2008년 5월 고령층(55~79세) 인구는 8,841천명으로 15세이상인구 39,540천명의 22.4%이며, 그 규모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 천명)

	55~7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2008. 5.	8,841	2,523	2,038	1,888	1,482	911
2007. 5.	8,594	2,471	2,008	1,825	1,450	841

나. 고령층 경제활동상태

- 고령층 고용률은 49.9%, 실업률은 1.5%로 전체 고용률(60.5%), 실업률(3.0%)보다 낮음
-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62.3%, 실업률은 2.0%였으며, 대부분 일자리에선 은퇴하는 65~7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36.7%, 실업률은 0.8%이었음

(단위 : 천명, %)

	55~79세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8. 5.	8,841	4,481	4,411	69	4,360	49.9	1.5
55~64세	4,561	2,896	2,839	57	1,665	62.3	2.0
65~79세	4,280	1,585	1,572	13	2,696	36.7	0.8
2007. 5.	8,594	4,448	4,375	73	4,147	50.9	1.6

다.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 55~79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8.7% (1,267천명), 농림어업 28.5%(1,259천명)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농림어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명, %)

	55~79세 취업자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및가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가운수 통신·금융업
55~64세	2,839 (100.0)	504 (17.8)	327 (11.5)	324 (11.4)	2,008 (70.7)	250 (8.8)	598 (21.1)	907 (32.0)	253 (8.9)
65~79세	1,572 (100.0)	755 (48.0)	97 (6.2)	97 (6.2)	720 (45.8)	34 (2.1)	282 (18.0)	359 (22.9)	45 (2.8)
전체 ¹⁾ 취업자	(100.0)	(7.9)	(17.2)	(17.1)	(74.9)	(7.9)	(23.7)	(33.1)	(10.1)
2007. 5.	4,375 (100.0)	1,276 (29.2)	391 (8.9)	387 (8.8)	2,708 (61.9)	278 (6.4)	898 (20.5)	1,244 (28.4)	288 (6.6)

1) 15세이상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임

○ 55~79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6.8%(1,181천명), 단순노무종사자 23.0%(1,015천명)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고,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 비중은 낮음

(단위 : 천명, %)

	55~79세 취업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가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종사자	기능·기계·단순		
							기능 ¹⁾	기계 ²⁾	단순 ³⁾
2008. 5.	4,411 (100.0)	419 (9.5)	126 (2.8)	949 (21.5)	1,181 (26.8)	1,737 (39.4)	334 (7.6)	389 (8.8)	1,015 (23.0)
55~64세	2,839 (100.0)	325 (11.4)	97 (3.4)	704 (24.8)	480 (16.9)	1,233 (43.4)	283 (10.0)	324 (11.4)	626 (22.1)
65~79세	1,572 (100.0)	94 (6.0)	28 (1.8)	245 (15.6)	701 (44.6)	503 (32.0)	50 (3.2)	65 (4.1)	388 (24.7)
전체 ⁴⁾ 취업자	(100.0)	(22.2)	(14.8)	(23.1)	(7.3)	(32.7)	(10.1)	(10.7)	(11.9)
2007. 5.	4,375 (100.0)	380 (8.7)	130 (3.0)	984 (22.5)	1,197 (27.4)	1,684 (38.5)	315 (7.2)	352 (8.0)	1,017 (23.3)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 단순노무종사자

4) 15세이상 전체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임

2. 고령층(55~79세) 취업실태

가.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

- 2008년 5월 고령층(55~79세)의 취업자 비중은 49.9%(4,411천명)로 전년 대비 1.0%p 하락하였음
- 「취업경험은 있으나 현재 미취업」인 경우는 44.6%이며, 「생애동안 취업경험이 전혀 없음」은 5.5%로 나타남

(단위 : 천명, %)

		55~79세 인구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	생애동안취업 경험전혀없음
2008. 5.		8,841 (100.0)	4,411 (49.9)	4,429 (50.1)	3,945 (44.6)	485 (5.5)
성별	남자	4,063 (100.0)	2,547 (62.7)	1,517 (37.3)	1,510 (37.2)	7 (0.2)
	여자	4,778 (100.0)	1,865 (39.0)	2,913 (61.0)	2,435 (51.0)	478 (10.0)
연령별	55~64세	4,561 (100.0)	2,839 (62.3)	1,721 (37.7)	1,548 (33.9)	173 (3.8)
	65~79세	4,280 (100.0)	1,572 (36.7)	2,708 (63.3)	2,397 (56.0)	312 (7.3)
2007. 5.		8,594 (100.0)	4,375 (50.9)	4,220 (49.1)	3,761 (43.8)	459 (5.3)

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무기간

- 생애동안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은 20년 8개월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23년 3개월)의 평균근속기간이 여자(18년 2개월)보다 5년 1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계 ¹⁾	5년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이상	평균 근무기간
2008. 5.		8,356 (100.0)	1,078 (12.9)	1,057 (12.7)	2,023 (24.2)	1,688 (20.2)	2,144 (25.7)	366 (4.4)	20년 8개월
	남자	4,056 (100.0)	217 (5.4)	322 (7.9)	1,059 (26.1)	1,051 (25.9)	1,250 (30.8)	156 (3.8)	23년 3개월
	여자	4,300 (100.0)	861 (20.0)	735 (17.1)	963 (22.4)	637 (14.8)	894 (20.8)	210 (4.9)	18년 2개월
2007. 5.		8,136 (100.0)	1,103 (13.6)	1,037 (12.7)	1,943 (23.9)	1,627 (20.0)	2,072 (25.5)	355 (4.4)	20년 7개월

1) 현재 취업자 +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자

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연령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그만둔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이직 연령은 만 53세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대에 이직한 비율이 48.5%, 여자는 40.6%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직연령은 남자 만55세, 여자 만52세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자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평균 이직연령
2008. 5.	5,887 (100.0)	298 (5.1)	278 (4.7)	1,001 (17.0)	2,604 (44.2)	1,432 (24.3)	274 (4.6)	만 53세
남자	2,731 (100.0)	9 (0.3)	89 (3.2)	468 (17.1)	1,324 (48.5)	745 (27.3)	96 (3.5)	만 55세
여자	3,156 (100.0)	289 (9.1)	189 (6.0)	533 (16.9)	1,281 (40.6)	687 (21.8)	177 (5.6)	만 52세
2007. 5.	5,592 (100.0)	277 (5.0)	272 (4.9)	1,014 (18.1)	2,433 (43.5)	1,359 (24.3)	238 (4.3)	만 53세

라. 그만둔 이유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26.8%,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 26.0%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 「정년퇴직」으로 그만둔 경우가, 여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음

(단위 : 천명,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자	정년 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 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외 ¹⁾
2008. 5.	5,887 (100.0)	668 (11.3)	466 (7.9)	1,530 (26.0)	849 (14.4)	1,578 (26.8)	389 (6.6)	407 (6.9)
남자	2,731 (100.0)	607 (22.2)	360 (13.2)	848 (31.0)	37 (1.3)	523 (19.1)	170 (6.2)	187 (6.8)
여자	3,156 (100.0)	61 (1.9)	106 (3.3)	683 (21.6)	813 (25.8)	1,055 (33.4)	218 (6.9)	221 (7.0)
2007. 5.	5,592 (100.0)	635 (11.4)	394 (7.0)	1,527 (27.3)	783 (14.0)	1,485 (26.5)	373 (6.7)	396 (7.1)

1)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3.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가. 구직활동 경험 여부

- 55~79세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 비중은 11.6%로 전년보다 0.2%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가 14.4%, 여자는 9.2%, 연령별로 보면, 55~64세는 15.3%, 65~79세는 7.6%가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55~79세인구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없음
2008. 5.		8,841 (100.0)	1,025 (11.6)	7,816 (88.4)
성 별	남자	4,063 (100.0)	586 (14.4)	3,477 (85.6)
	여자	4,778 (100.0)	439 (9.2)	4,339 (90.8)
연령별	55~64세	4,561 (100.0)	698 (15.3)	3,863 (84.7)
	65~79세	4,280 (100.0)	327 (7.6)	3,953 (92.4)
2007. 5.		8,594 (100.0)	978 (11.4)	7,617 (88.6)

-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을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자는 14.9%로 전년과 같았고, 미취업자는 8.2%로 0.5%p 상승하였음

(단위 : 천명, %)

		계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없음
2008. 5.	취업자	4,411 (100.0)	660 (14.9)	3,752 (85.1)
	미 취업자 ¹⁾	4,429 (100.0)	365 (8.2)	4,064 (91.8)
2007. 5.	취업자	4,375 (100.0)	654 (14.9)	3,721 (85.1)
	미 취업자 ¹⁾	4,220 (100.0)	324 (7.7)	3,896 (92.3)

1) 생애 취업 무경험자도 포함

나. 구직경로

-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를 보면, 「친구, 친지의 소개 부탁 (47.2%)」이 가장 많았고, 「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15.8%)」, 「민간 직업알선기관(10.9%)」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구직경험자	노동부 및 기타공공 직업알선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신문,잡지, 인터넷 등	사업체 문의, 방문	친구, 친지 소개 부탁	그 외 ¹⁾
2008. 5.	1,025 (100.0)	162 (15.8)	112 (10.9)	99 (9.7)	110 (10.7)	484 (47.2)	59 (5.7)
남자	586 (100.0)	87 (14.9)	68 (11.6)	66 (11.3)	72 (12.2)	257 (43.9)	36 (6.1)
여자	439 (100.0)	75 (17.0)	44 (10.0)	33 (7.6)	38 (8.6)	226 (51.6)	23 (5.2)
2007. 5.	978 (100.0)	130 (13.3)	104 (10.7)	82 (8.4)	117 (12.0)	471 (48.2)	73 (7.5)

1) 자영업 준비, 기타

다. 미취업자 비구직사유

-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없으며 미취업자인 경우 주된 비구직 사유를 살펴보면, 「건강상의 이유로(38.4%)」가 가장 많았음
- 연령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55~64세에서 「가사로/가족 반대로」의 비중이 65~79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65~79세에서는 「나이가 많아서」의 비중이 55~6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단위 : 천명, %)

	비구직 ¹⁾ 미취업자	적 당 한 일 자 리 가 없 을 것 같 아 서	가 사 로 / 가 족 반 대 로	건 강 상 의 이 유 로	일 을 하 고 싶 지 않 아 서	나 이 가 많 아 서	기 타
2008. 5.	4,064 (100.0)	309 (7.6)	726 (17.9)	1,559 (38.4)	160 (3.9)	1,220 (30.0)	89 (2.2)
55~64세	1,485 (100.0)	175 (11.8)	420 (28.3)	562 (37.9)	75 (5.1)	203 (13.7)	50 (3.4)
65~79세	2,580 (100.0)	134 (5.2)	306 (11.9)	997 (38.6)	85 (3.3)	1,018 (39.4)	39 (1.5)
2007. 5.	3,896 (100.0)	312 (8.0)	711 (18.2)	1,504 (38.6)	172 (4.4)	1,136 (29.1)	62 (1.6)

1) 생애 취업 무경험자도 포함

4. 지난 1년간 취업경험

가. 취업경험 여부

- 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취업경험 비중은 56.2%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취업경험 횟수는 「한 번」 한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고, 취업경험은 남자(69.1%)가 여자(45.3%) 보다 23.8%p 높게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55~64세는 69.1%, 65~79세는 42.6%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55~79세 인구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있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없음
2008. 5.		8,841 (100.0)	4,971 (56.2)	4,260 (48.2)	386 (4.4)	326 (3.7)	3,869 (43.8)
성별	남자	4,063 (100.0)	2,806 (69.1)	2,414 (59.4)	202 (5.0)	189 (4.7)	1,258 (31.0)
	여자	4,778 (100.0)	2,166 (45.3)	1,846 (38.6)	184 (3.8)	137 (2.9)	2,612 (54.7)
연령별	55~64세	4,561 (100.0)	3,149 (69.1)	2,665 (58.4)	250 (5.5)	234 (5.1)	1,411 (30.9)
	65~79세	4,280 (100.0)	1,822 (42.6)	1,595 (37.3)	136 (3.2)	91 (2.1)	2,458 (57.4)
2007. 5.		8,594 (100.0)	4,910 (57.1)	4,172 (48.5)	395 (4.6)	343 (4.0)	3,684 (42.9)

나.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관련성

-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매우 관련 있음」은 61.9%였으며, 전혀 관련 없는 경우는 17.2%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지난 1년간 취업경험자	전혀 관련없음	별로 관련없음	약간 관련있음	매우 관련있음
2008. 5.		4,971 (100.0)	856 (17.2)	542 (10.9)	497 (10.0)	3,077 (61.9)
	남자	2,806 (100.0)	524 (18.7)	313 (11.1)	285 (10.1)	1,684 (60.0)
	여자	2,166 (100.0)	332 (15.3)	229 (10.6)	212 (9.8)	1,393 (64.3)
2007. 5.		4,910 (100.0)	829 (16.9)	538 (11.0)	479 (9.7)	3,065 (62.4)

5.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가. 향후 취업의사 및 취업동기

- 55~79세 인구 중에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57.1%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였음
- 취업 동기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가 31.2%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는 19.8%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71.8%)가 여자(44.5%)보다 장래 근로 희망 비중이 높았으며, 취업동기는 남·여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가 가장 많았음
-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의 71.5%, 65~79세의 41.7%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55~79세 인구	장래 근로 원함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장래근로 원하지않음
2008. 5.		8,841 (100.0)	5,045 (57.1)	1,747 (19.8)	2,763 (31.2)	101 (1.1)	153 (1.7)	270 (3.1)	12 (0.1)	3,795 (42.9)
성 별	남자	4,063 (100.0)	2,917 (71.8)	1,124 (27.7)	1,494 (36.8)	79 (1.9)	95 (2.3)	120 (3.0)	7 (0.2)	1,146 (28.2)
	여자	4,778 (100.0)	2,128 (44.5)	623 (13.0)	1,269 (26.6)	22 (0.5)	59 (1.2)	150 (3.1)	5 (0.1)	2,650 (55.5)
연 령 별	55~64세	4,561 (100.0)	3,259 (71.5)	1,123 (24.6)	1,845 (40.5)	81 (1.8)	75 (1.6)	125 (2.7)	10 (0.2)	1,302 (28.5)
	65~79세	4,280 (100.0)	1,786 (41.7)	624 (14.6)	918 (21.4)	20 (0.5)	78 (1.8)	145 (3.4)	2 (0.0)	2,494 (58.3)
2007. 5.		8,594 (100.0)	4,945 (57.5)	1,688 (19.6)	2,784 (32.4)	82 (1.0)	137 (1.6)	244 (2.8)	11 (0.1)	3,649 (42.5)

-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장래 근로희망 비율은 취업자가 86.5%로 가장 높았고,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은 30.1%, 「생애동안 취업경험 전혀 없음」은 8.5%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계	장래 근로 원함	장래 근로 원하지 않음						장래 근로 원하지 않음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취업자	4,411 (100.0)	3,815 (86.5)	1,388 (31.5)	2,116 (48.0)	84 (1.9)	82 (1.9)	138 (3.1)	8 (0.2)	596 (13.5)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	3,945 (100.0)	1,189 (30.1)	345 (8.7)	631 (16.0)	17 (0.4)	69 (1.7)	125 (3.2)	4 (0.1)	2,756 (69.9)
생애동안 취업 경험 전혀 없음	485 (100.0)	41 (8.5)	15 (3.0)	16 (3.3)	1 (0.1)	3 (0.6)	7 (1.5)	- (-)	443 (91.5)

나. 일자리 선택기준

-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일자리 선택시 「임금수준(54.8%)」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9.6%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임금수준」과 「계속근로 가능성」, 여자는 「임금수준」과 「일의 양과 시간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장래근로 희망자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	그 외 ¹⁾
2008. 5.	5,045 (100.0)	2,763 (54.8)	618 (12.2)	309 (6.1)	147 (2.9)	696 (13.8)	391 (7.8)	121 (2.4)
남자	2,917 (100.0)	1,527 (52.3)	283 (9.7)	195 (6.7)	71 (2.4)	470 (16.1)	277 (9.5)	94 (3.2)
여자	2,128 (100.0)	1,236 (58.1)	335 (15.7)	114 (5.4)	76 (3.6)	226 (10.6)	114 (5.4)	27 (1.3)
2007. 5.	4,945 (100.0)	2,237 (45.2)	709 (14.3)	420 (8.5)	182 (3.7)	898 (18.2)	411 (8.3)	89 (1.8)

1) 사업장 규모, 사회적 지위유지 가능성, 기타

- 교육정도별로 보면, 모든 교육정도에서 「임금수준」과 「계속근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의 내용」, 「과거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장래근로 희망자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	그 외 ¹⁾
2008. 5.	5,045 (100.0)	2,763 (54.8)	618 (12.2)	309 (6.1)	147 (2.9)	696 (13.8)	391 (7.8)	121 (2.4)
중졸 이하	3,233 (100.0)	1,967 (60.8)	408 (12.6)	144 (4.4)	89 (2.8)	407 (12.6)	191 (5.9)	29 (0.9)
고 졸	1,265 (100.0)	631 (49.9)	152 (12.0)	87 (6.9)	49 (3.8)	204 (16.1)	107 (8.5)	35 (2.7)
대졸 이상	548 (100.0)	165 (30.1)	58 (10.5)	79 (14.4)	9 (1.7)	86 (15.6)	94 (17.1)	57 (10.5)

1) 사업장 규모, 사회적 지위 유지가능성, 기타

다. 희망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

-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74.1% (3,739천명)이며, 「시간제」는 25.9%(1,306천명)로 나타났음
- 「시간제」 희망은 여자(38.8%)가 남자(16.5%)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장래 근로희망자	전일제	시간제
2008. 5.	5,045 (100.0)	3,739 (74.1)	1,306 (25.9)
남자	2,917 (100.0)	2,437 (83.5)	480 (16.5)
여자	2,128 (100.0)	1,302 (61.2)	826 (38.8)
2007. 5.	4,945 (100.0)	3,623 (73.3)	1,322 (26.7)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 희망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시간제」 희망 비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단위 : %)

		전체 (55~7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2008. 5.	전일제	74.1	82.2	76.6	69.4	58.1	50.3
	시간제	25.9	17.8	23.4	30.6	41.9	49.7
2007. 5.	전일제	73.3	81.2	75.0	69.1	58.2	52.4
	시간제	26.7	18.8	25.0	30.9	41.8	47.6

-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가 원하는 임금 수준은 「월평균 50~100만원미만」 희망자가 34.8%,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30.0%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35.7%)」, 여자는 「월평균 50~100만원미만(48.6%)」 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장래근로 희망자	월평균 50만원미만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월평균 150~300만원 미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2008. 5.		5,045 (100.0)	576 (11.4)	1,757 (34.8)	1,516 (30.0)	939 (18.6)	257 (5.1)
	남자	2,917 (100.0)	142 (4.9)	722 (24.8)	1,041 (35.7)	788 (27.0)	225 (7.7)
	여자	2,128 (100.0)	435 (20.4)	1,035 (48.6)	475 (22.3)	151 (7.1)	32 (1.5)
2007. 5.		4,945 (100.0)	588 (11.9)	1,792 (36.2)	1,431 (28.9)	887 (17.9)	247 (5.0)

6. 연금수령 여부

- 55~79세 인구의 29.9%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자의 81.2%가 5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5만원미만」을 받은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37.5%, 여자는 23.5%가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자 수령자의 39.8%는 「10~25만원미만」을 수령하였으며, 14.6%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수령자의 50.5%는 「10만원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월평균, 천명, %)

	55~79세 인구	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	월평균 연금수령액 ¹⁾					
				10만원 미만	10~25 만원미만	25~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만원 이상
2008. 5.	8,841 (100.0)	6,193 (70.0)	2,648 (29.9) (100.0)	847 (32.0)	976 (36.8)	328 (12.4)	148 (5.6)	95 (3.6)	254 (9.6)
남자	4,063 (100.0)	2,540 (62.5)	1,513 (37.5) (100.0)	278 (18.3)	606 (39.8)	240 (15.7)	107 (7.0)	69 (4.6)	222 (14.6)
여자	4,778 (100.0)	3,653 (76.5)	1,125 (23.5) (100.0)	569 (50.5)	369 (32.8)	89 (7.9)	41 (3.7)	25 (2.2)	32 (2.9)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참고1>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 개요

1. 조사목적

- 청년층의 취업실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고용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2. 추진과정

- 제1차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15개 항목)(2002. 6)
- 제2차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11개 항목)(2003. 5)
- 제3차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14개 항목)(2004. 5)
- 제4차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14개 항목)(2005. 5)
- 제5차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15개 항목)(2006. 5)
- 제6차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2007. 5)
 - 19개 항목 : 최종학교 입학·편입시기 및 졸업/중퇴/휴학시기, 최종학교 학제, 최종학교 재학 중 휴학유무 및 사유 등 항목 추가
- 제7차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2008. 5)
 - 19개 항목 : 전일제/시간제 추가, 직업교육(훈련) 선택지문 수정

3.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15~29세 연령
- 조사대상시기 : 2008. 5. 11. ~ 5. 17.
- 조사실시시기 : 2008. 5. 18. ~ 5. 24.
- 조사항목 : 19개 항목
 - 최종학교 입학·편입시기 및 졸업/중퇴/휴학시기
 - 최종학교 학제
 - 최종학교 재학 중 휴학유무 및 사유
 - 최종학교 편입여부 및 시기
 - 학교교육외 직업훈련 경험여부 및 시기
 - 직업훈련 기관
 - 취업시험준비 여부 및 분야
 -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취업포함) 유무 및 형태
 -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취업포함) 기간
 - 졸업/중퇴 후 취업횟수
 - 첫 직장 종사상지위
 - 첫 직장 취직·이직 시기
 - 첫 직장 이직 사유
 - 첫 직장의 산업
 - 첫 직장의 직업
 - 직장 취업경로
 - 전공과의 일치정도
 - 미취업기간
 - 미취업기간 동안 활동상태

<참고2>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 개요

1. 조사목적

-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 노인 취업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등 고용 안정정책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추진과정

- 제1차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13개 항목)(2005. 5)
- 제2차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14개 항목)(2006. 5)
- 제3차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14개 항목)(2007. 5)
- 제4차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15개 항목)(2008. 5)
 - 15개 항목 : 직업훈련 지문 수정, 연금수령 여부 추가

3.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5~79세 연령층
- 조사대상시기 : 2008. 5. 11. ~ 5. 17.
- 조사실시시기 : 2008. 5. 18. ~ 5. 24.
- 조사항목 : 15개 항목
 - 경제활동상태
 -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무기간
 -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이직시기
 - 이직사유
 - 구직활동 경험 및 회수
 - (비구직자) 비구직사유
 - (구직경험자) 주된 구직경로
 - 직업훈련 경험여부 및 훈련기관
 - 취업경험 및 횟수
 - (취업경험자) 최근 취업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
 - 향후 취업의사
 - 일자리 선택기준
 -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 희망임금수준
 - 연금수령여부